

국내 최고의 가공전문업체 발돋움 도모

포장기계 국산화에 대한 실천을 신념으로

포장산업이 총 GNP의 2%인 6조원을 넘어서 이제 어엿한 국내산업군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포장산업이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업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앞에 서진 않지만 2차 가공산업계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포장가공업체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몇달전 안산 시화공단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 성화산업은 겉모습은 바뀌어 왔지만 근 14년째 연포장가공업계의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이다.

1982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우연치 않

은 기회에 포장산업에 뛰어들게 된 이걸주 사장이 창립한 성화산업은 아마도 많은 포장인들의 기억속에 신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당시 여름에 한창 인기를 끌던 플라포 제품의 아이스크림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닦아 뛰어 든 이 사장은 “포장산업에 뛰어든 초반에는 히트상품으로 주목받을 만큼 수요도 있고 기계를 새롭게 개발해 스스로 공급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식으로 생산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붙어 단가가 떨어지고 결국 손해만 남기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을 때를 떠올렸다.

이를 계기로 좀더 다양한 제품 생산을 생각하게 된 이 사장은 이번에는 캡 쪽으로 눈을 돌려 농심 육개장 캡을 생산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수작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재 비용보다도 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 자동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어려서부



▲ 성화산업 전경



◀ 가공업계의 선두주자로 서겠다는 이걸주 사장

터 기계에 대한 재주를 인정받아 오던 이 걸주 사장은 의주기계 위주의 편칭기를 1년여동

안의 노력 끝에 개발하게 되었다. 편칭기를 개발한다는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던 국내 업계에 하나의 획을 긋는 전라인 자동화를 실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저에게는 15~20% 정도의 원자재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건비도 1/3 정도 감소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난점을 역시 극복하지 못한 이 사장은 이 사업에 대한 미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2차 가공산업이라는 맹점 때문에 사업 확장이 힘이 들고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할 때 포장업계를 떠나 다른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던 이 사장은 많은 고민 끝에 성화라는 딸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시화공단으로 자리도 옮기며 심기일전, 앞으로도 계속 가공 쪽에서 일인자로서 자리잡기 위한 최선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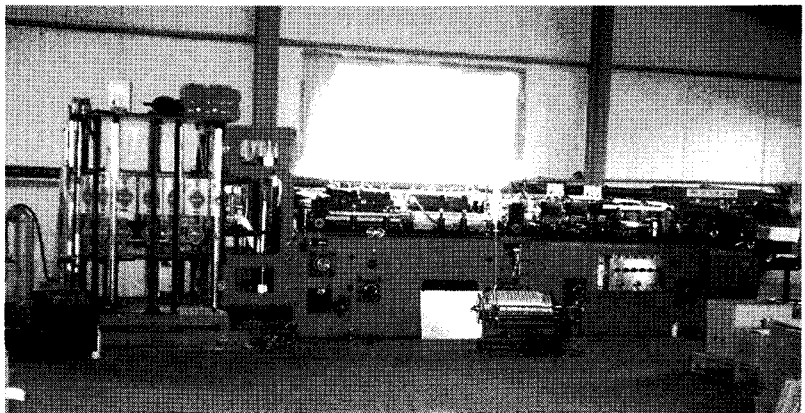
포장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업화가 진행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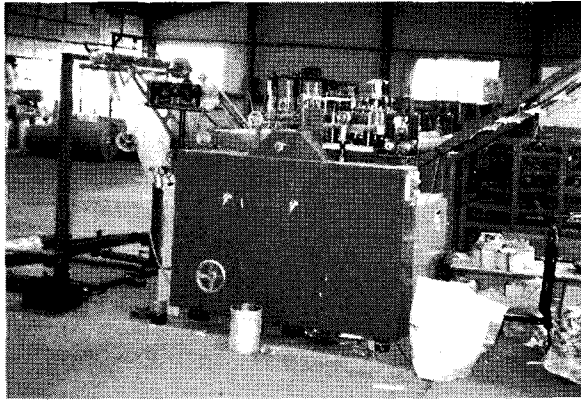
또한 성화산업으로 다시 재정비하면서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일본의 니시베기계도 수입하면서 가공전문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가공 전문분야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 가고 식품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11월에 일본에서 기계가 들어오면 더불어 작업장 분위기 개선 및 위생상태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의 난제를 스스로 극복해 갈 생각이다.

수작업화되어 있고 외국기계의 의존도가 높은 초창기부터 국산기계 개발에 주력해 온 이 사장은 앞으로도 기계개발에 주력, 성화산업하면 포장가공전문업계의 일인자라는 인식과 동시에 국내 최고의 자동기기개발업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연포장가공업계에 종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인쇄업계 등 모(母) 업계들의 가공업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



▲ 전라인 자동화를 추구하는 공장 내부



▲ 성화산업에서 개발한 편징기

로 확대하고 올바른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공업소를 협력업체로서 인정하고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화산업의 현재 종업원 수는 15명 정도이고 임가공이므로 제조업보다는 마진 폭이 좀더 낮아 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캡이나 컵 뿐만 아니라 제대에 투자를 추진해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처럼 비록 2차 가공산업으로서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지만 성화산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부심이라면 사원들간의 인간관계, 특히 노사간의 두터운 신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원 복지에



▲ 성화산업의 생산 제품들.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성화산업은 지금껏 성화산업에 몸담아 왔던 직원들과의 인간적인 유대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포장관련업계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포장가공업계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쇄분야까지 담당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만큼 쉽지않은 일이고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다.

성화산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는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모을 다짐을 하고 있다.

현재 가공업체들의 권익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설립한 가공관련 협의회가 안양쪽에 밀집되어있는 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원 취지는 힘을 합쳐서 가공업체들이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자는데 있었으나 워낙 좁고 뻗한 가공업계에서 서로의 경쟁은 불가항력적이어서 많은 난점이 있다고 한다.

성화산업의 이 사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먼저 인식한 사람이 움직여야 하며 스스로가 그 몫을 담당해 업계의 허점을 바로잡아 성화산업의 발전은 물론 가공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작은 규모임에도 커다란 목표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성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

윤지은 기자

정정합니다

지난 11월호 158p 건설화학공업(주) 탐방기사 중 (주)강남의 위치를 울산에서 '부산'으로, 99년도 매출액을 5조5천1백4십억에서 '5천억'으로 정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점을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